“올해도 연등은 ‘질문’입니까?”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⑦ 있어도 되는지를 묻는 ‘연등’과 얼마나 예쁜지를 묻는 ‘트리’



부처님오신날의 연등은 공공장소에 걸리는 순간부터 크리스마스트리와 달리 감상의 대상이 아닌, 검토와 관리의 ‘사안’이 된다. 이제 연등을 향한 배제와 검열의 눈길을 거두고, 연등의 아름다움과 온기를 먼저 읽어내야 한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목멱골의 극락, 사거리에서의 질문

얼마 전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연등 점등식이 열렸다. 다양한 축하 공연과 각국 대사들의 축사 속에 만 개가 넘는 연등이 교정을 환하게 밝혔다. 남산을 등진 목멱골 교정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 년 중 가장 황홀한 풍경으로 학생들의 귀갓길을 밝힐 예정이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학창 시절 은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극락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나요? 5월 저녁 명진관을 나서면 펼쳐지는, 연등 켜진 교정이 바로 극락인데.” 교수님은 저녁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을 이끌고 연등 아래를 함께 걷곤 하셨다. 그 시절 우리에게 연등은 단지 종교적 상징만이 아니었다. 봄밤의 정취를 완성하는 빛의 축제였고, 청춘의 시간을 은은하게 감싸던 계절의 풍경이었다.

이 연등의 물결은 교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장충단공원을 지나 장충사거리까지 길게 이어진 등불은, 캠퍼스의 빛이 도시의 저녁 속으로 번져 나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게 그 불빛을 따라 사거리로 걸어 내려가던 길에 한 행인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연등을 왜 이런 공공 대로에 걸어두게 하는 거야? 저건 불교 행사잖아?”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공간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놓이는 장면이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다. 저 행인은 겨울밤 도심을 밝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까?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 트리를 향한 항의는 좀처럼 들어본 적 없지만, 연등을 둘러싼 날 선 반응은 낯설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왜 어떤 빛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빛은 매번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해명해야만 하는지.” 오늘은 이 불균형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감상의 대상’인 트리와 ‘심사의 대상’인 연등

연말이 되면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광장 한복판의 거대한 나무가 무엇인지, 왜 그 자리에 놓였는지. 그것은 크리스마스트리이고,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의 관심은 존재 이유가 아니라 감상의 형식을 띤다. “어디가 포토존이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커졌나?”, “몇 시에 켜지나?” 등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트리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머문다.

이 익숙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문화적 경험 속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계절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캐럴 한 구절만으로도 반짝이는 불빛은 사랑과 설렘의 이미지로 연결되며, 기업의 광고들 역시 트리를 행복한 소비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트리는 더 이상 특정 종교의 상징이 아니다. 설명을 요구받지 않는 계절적 장치이자, 누구도 공공장소를 차지한 이유를 묻지 않는 하나의 ‘문화적 배경’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의 연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연등이 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상보다 먼저 ‘검토’를 시작한다. 특정 종교 행사를 왜 공공 공간에서 할 수 있는지, 통행에 불편은 없는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아름다운지’보다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래서 연등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풍경이 아니라 ‘사안’이 된다. 장식이 아니라 ‘관리’와 ‘설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연등과 연등회는 매번 자신의 뒤에 긴 해설서를 매단 채 등장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재만으로는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해명해야 한다.

> **크리스마스 트리, 익숙한 겨울 풍경 수용**
> **부처님오신날 연등은 검토 ‘사안’ 된 현실**
> **언론서도 성탄절–감성, 연등회–통제 표현**
> **연등엔 정당성 심사 질문 길들여진 사회**
> **배제와 검열 대신 존재를 읽는 감각 필요**

언어 속에 박제된 차별적 시선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작년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전후의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 두 상징을 다루는 언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연등회 관련 기사에서는 ‘교통통제’, ‘우회로’, ‘안전관리’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대규모 도심 행사의 특성상 필요한 정보이지만, 이러한 어휘가 반복될수록 연등은 문화적·정서적 의미보다 관리와 점검의 대상으로 먼저 인식되기 쉽다.

반면 성탄절의 도심 풍경은 ‘희망의 빛’, ‘연말 명소’, ‘사랑’ 같은 감성적 표현 속에서 소비된다.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모이더라도, 위험과 통제의 언어보다는 설렘과 사랑의 언어와 이미지가 더 전면에 배치된다.

결국 같은 ‘빛’이라도 하나는 관리와 심사의 대상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감성과 낭만의 풍경이 된 것이다. 언론의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시키는 장치가 돼버린다.

무표적 존재와 유표적 존재

언어학에는 무표성과 유표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개념이 당연하고 보편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를 ‘무표(Unmarked)’라고 하고, 반대로 특수한 설명이나 조건이 덧붙어야만 이해되는 상태를 ‘유표(Marked)’라고 한다. 가령 ‘군인, 교수, 기자, 의사’에서 남성은 당연한 기본값(무표)으로 작동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여군, 여교수, 여기자, 여의사’처럼 유표적인 접사를 덧붙여야만 존재가 드러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개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는 이미 완벽한 무표적 지위를 획득했다. 트리는 더 이상 종교적 상징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겨울이라는 계절의 기본 값처럼 작동한다. 설명이 필요 없으니 질문도 없다.

반면 연등은 상대적으로 유표적 존재에 머물러 있다. 연등이 공공장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천년의 전통’, ‘관광 자원’ 같은 수많은 수식어가 동원돼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연등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연등 앞에서만 ‘정당성’을 심사하는 질문의 습관에 길들여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징은 짧은 시간 안에 ‘공공성’이라는 자연스러운 통행권을 얻고, 또 어떤 상징은 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매번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현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심코 내면화해 온 가장 익숙한 편견인지도 모른다.

지우는 광장에서 함께 놓이는 광장으로

더 나아가 우리에겐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 연등이 ‘전통’이나 ‘문화유산’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않더라도, 불교의 상징물 그 자체로 광장에 설 수는 없는 것일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오늘날 해외의 여러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 옆에 유대교의 상징인 메노라를 함께 세워두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공장소란 종교의 색채를 지워 무채색으로 만드는 공간만은 아니다. 서로 다른 상징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놓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광장이 된다. 이러한 풍경은 ‘공공성’이 특정 상징을 걸러내는 검문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색깔들이 공존하는 열린 마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의 습관을 바꾸는 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공공성의 정의와 경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적 문해력이다. 배제와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그 존재가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감각이 먼저다.

질문이 달라지면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연등을 향해 태생의 정당성 대신 그 안의 아름다움과 온기를 먼저 바라볼 때, 비로소 서로 다른 빛들이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내년 오월에도 연등은 어김없이 목멱골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그 행인을 다시 만난다면 조용히 물어보고 싶다.

“당신에게 올해도 연등은 ‘질문’입니까, 아니면 봄밤의 ‘풍경’입니까?”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